북한매체 보도 동향

1. 농업정책

❑ 농업정책

○ 농산과 축산을 배합하여(로동신문 3.19)

· 김정일은 “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유기질 비료를 많이 내야 한다”고 말함.

· 정보당 알곡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함. 석정협동농장에서는 축산을 잘해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지력 제고에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음.

· 농장에서는 축산작업반을 종합목장규모로 꾸릴 목표를 세우고 건설에 착수하여 해마다 집짐승마리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수천마리의 새끼돼지와 수십 톤의 고기를 생산함.

· 제5, 7작업반을 비롯한 농장의 모든 작업반에서는 수천 톤의 물거름을 포전으로 실어 나름. 이를 통해 땅의 지력이 높아져 알곡생산량이 늘어남.

·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확립하여 농축산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릴 데 대한 공동구호가 널리 퍼지고 있음.

○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(로동신문 3.20)

·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19일에 진행됨. 모임에는 최룡해 황해북도당위원회 책임비서, 관계부문 일꾼, 농장일꾼, 농업근로자가 참가함.

· 모임에서는 농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우량품종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추진시키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을 데 대한 문제, 각종 농기계의 이용률을 더욱 높일데 대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함.

· 또한 우렁이에 의한 논비배관리방법을 완성하는 등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각종 농기계를 더 많이 창안제작하여 기계화비중을 높여나갈 것을 언급함.

□ 과학영농

○ 농업생산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 확대(로동신문 3.16)

· 김정일은 “농업과학기술혁명을 재촉해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농업을 공업화, 현대화, 과학화하고 농업생산력을 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농업생산에서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”라고 말함.

· 전자재료연구소의 과학자들이 개발한 종자처리기술은 종자의 물질대사를 촉진시키고 효소의 활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리적 자극체계에 의하여 종자를 처리함으로써 싹트는 비율을 높이고 작물의 성장을 촉진시켜 수확고를 높이는 기술임.

· 과학자들은 이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직류고전압종자처리장치도 설계 제작하여 종전에 비해 처리능력이 거의 2배로 높아짐.

· 종전의 종자처리방법에 비해 많은 노동력과 자재를 절약함으로써 적은 원가로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음. 또한 현재 수많은 단위에 도입되어 농작물 수확고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음.

○ 새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에서 성과 확대(로동신문 3.23)

· 함경남도농업과학분원에서는 당의 종자혁명방침, 두벌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더 높이 발양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계획으로 논벼와 강냉이의 우량한 새품종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함.

· 우량한 새 찰벼품종육성이 연구성과 중 하나임. 이는 기존 찰벼의 수확량과 출미률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함.

· 과학자들은 이에 기초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재배시험과정을 거쳐 이 품종을 뒤그루품종만으로가 아니라 원그루품종으로도 쓸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였음.

· 현재 함경북도와 서해안지대는 물론 평안북도의 여러 시, 군 협동농장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음.

2. 벼농사

□ 농사차비

○ 빈틈이 없는가를 살펴보며(로동신문 3.23)

· 온천군 운하협동농장에서는 씨뿌리기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.

·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정비, 중소농기구준비, 거름생산과 실어내기, 모판자재확보, 종자준비 등 모든 농사준비가 일정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.
· 기계화작업반과 수리분조에서는 삽, 호미, 낫을 비롯한 소농기구 준비에 여념이 없음.

❑ 씨뿌리기

○ 벼냉상모판씨뿌리기 준비 마감단계(로동신문 3.15)
· 김정일은 "농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해야 한다"고 말함.
· 황해남도에서는 벼랭상모판씨뿌리기 준비가 한창임. 새길, 백석, 명석협동농장을 비롯한 신천군안의 각 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.
· 배천, 연안, 청단군을 비롯한 연백벌 안의 농촌에서도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한창임. 이곳에서는 농업근로자의 열의에 맞게 작업조를 조직하고 씨뿌리기 준비를 추진하고 있음.
· 해주시 석천, 강령군 내동, 옹진군 송월협동농장을 비롯한 도안의 다른 협동농장에서도 각 단위의 실정에 맞게 씨뿌리기 준비를 빨리 끝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있음.

○ 씨뿌리기 준비로 들끓는 협동벌(로동신문 3.17)
· 은파군 례로협동농장에서는 모든 영농공정에서 앞서나간다는 원칙 하에 씨뿌리기준비를 실시하고 있음.
· 농장에서는 다수확품종배치를 포전별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놓고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이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.

○ 씨뿌리기를 제때에 하자(로동신문 3.27)
· 벼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었음. 각 농장에서는 씨뿌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.
· 각지 농촌경리부문 당조직, 일꾼들은 씨붙임면적을 철저히 보장하며 씨뿌리기를 제철에 제대로 하기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· 각 농장에서는 새로운 종자처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정보당 수확고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· 또한 모판에 부식토와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내고 벼모가 문제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모판수평을 정확히 보장한 상태에서 씨뿌리기를 실시하고 있음.

○ 벼랭상모판씨뿌리기 시작(로동신문 3.29)
· 황해남도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도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옹진군에서 벼랭상모판씨

뿌리기를 위한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였음. 이를 통해 씨뿌리기를 제철에 제대로 하도록 기술 지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음.

- 안악군 오국, 재령군 삼지강, 신천군 명석협동농장, 새날농장 등 재령벌안의 농촌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실시하고 있음.
- 배천군을 비롯한 벌안의 농촌에서는 질 좋은 거름과 모판자재를 착실히 마련해놓고 씨뿌리기를 실시하고 있음.
- 삼천, 신원, 강령, 은천, 태탄군을 비롯한 다른 도안 다른 군의 농업부문에서도 종자처리를 앞세우면서 씨뿌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4. 축 산

○ 벌방 축산을 이들처럼 내밀자(로동신문 3.9)

- 김정일은 “축산업도 발전시켜야 한다.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고기를 많이 생산한 인민들에게 공급해줄 수 있고 거름을 내어 알곡생산을 늘릴 수 있다”고 말함.
-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에서 한해에 종축작업반에서 새끼돼지 2천 마리 이상과 돼지, 오리, 토끼를 비롯한 갖가지 고기를 수십 톤 생산해 냈으며 작업반 비육분조마다 고기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했음.
- 벌방지대는 대부분이 논이어서 집짐승먹이를 보장하기 어려움. 운전군 운하협동농장은 노동력, 생산건물, 설비, 종자, 먹이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여 작업반에 과학적인 종축생산토대를 마련했음.
- 농장에서는 종합적인 먹이가공기지를 갖추고,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자연흐름식으로 집짐승우리에 흘러들게 하였음. 그리고 그 물을 이용하는 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필요한 전기도 자체로 생산하였음. 또한 우량품종의 어미돼지를 구입하여 마리수를 늘리면서 종축생산체계를 바로 세워 나갔음.
- 애쓴 보람으로 농장을 세대에서는 집짐승 기르기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만큼 농장 살림, 가정살림이 더욱 윤택해졌음. 또한 해마다 축산기지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냄으로써 알곡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.

○ 축산물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(로동신문 3.21)

- 김정일은 “우리가 이미 마련된 토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축산업을 발전시키면 단백질 식품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”고 말함.
- 현대적으로 건설된 각지 돼지공장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고기 생산을

훨씬 늘려나가고 있음.

· 강계돼지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종축생산체계를 세우고, 종축생산과 먹이생산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자체로 우량품종의 새끼돼지를 충분히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음.

· 사리원돼지공장에서는 과학화의 생활력이 높이 발휘되고 있음.

· 신의주닭공장에서는 지난해보다 고기는 1.4배, 달걀은 2배 이상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
· 평북돼지공장, 함주돼지공장에서는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 먹이소비를 줄이면서도 고기생산을 늘리고 있음.

○ 전망이 좋은 축산기지(로동신문 3.29)

· 신천군 반정협동농장 축산작업반에 집짐승 우리, 먹이가공실 등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되었음.

· 짧은 기간에 바람이 잘 통하고 실내온도가 알맞게 보장되도록 설계된 4개 호동에 100여 칸의 돼지우리와 먹이창고, 먹이가공실 그리고 토끼, 닭, 오리, 게사니를 비롯한 집짐승을 기를 수 있는 축산기지가 건설되었음.

· 농장에서는 축산기지건설과 동시에 집짐승 수를 늘리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음.

· 또한 집짐승먹이첨가제를 받아들여 먹이문제 해결을 통해 축산물생산을 늘렸음.

5. 농업기반

□ 물길공사

○ 예성강청년2호발전소 4호 물길굴 완공(로동신문 3.12)

· 예성강청청년2호발전소 4호 물길굴이 완공되었음.

· 물길굴의 빠른 완공을 위해 일꾼, 건설자들은 작업공정에서 기술혁신안, 합리적인 공법을 받아들여 공사를 적극 추진하였음.

· 건설자들은 암질에 따른 발파구멍을 선택하고 능률적인 발파방법을 도입하였으며 합리적인 지구를 창안하여 콘크리트타입속도를 종전에 비해 2배로 높였음.

6. 산 림

○ 봄철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나서자(로동신문 3.2)

· 김정일은 “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해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리

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다"고 말함.

· 노동당은 산림조성사업을 2000년대부터 새롭게 전개하여 전국을 수림화, 원림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실천을 수행하고 있음.

· 나무심기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 만큼 전군중적으로 실시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음.

· 각 도, 시, 군, 기관, 기업소에서는 나무심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노동력 조직과 나무모보장사업을 실시하여 봄철식수월간에 각 지역과 단위에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

· 나무를 많이 심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.

○ 군중적으로 많은 나무를 심어 온 나라를 수림화, 원림화 하자(로동신문 3.3)

· 김정일은 "나무 심는 사업을 중요한 사업으로 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, 원림화해야 한다"고 말함.

· 나무심기를 힘차게 추진하기 위한 궐기모임이 2일 각지에서 진행되었으며, 당과 국가간부, 부당위원장, 근로단체, 성, 중앙기관 책임일꾼, 각계층 근로자, 청소년 학생들이 모임에 참가하였음.

· 궐기모임에서는 김병팔 직총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발표를 하였으며 국토환경보호성 부국장 심창훈, 중구역직맹위원장 김경석, 모란봉공원관리소 지배인 장원복이 토론하였음.

· 발표자 및 토론자는 적지적수의 원칙에 따라 지대별, 필지별, 수종별 나무심기계획을 세우고 식수사업을 추진할 것을 언급하였음. 또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막이와 병해충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을 주장하였음.

○ 푸른 숲 우거질 내일을 그려보며(로동신문 3.30)

· 각 군에서는 올해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을 목표를 세우고 봄철나무심기를 군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.

· 또한 나무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구덩이도 파고 나무모도 보장하고 있음.

· 나무심기에는 노동자, 사무원, 청소년 학생들 모두가 참여하고 있음.

7. 기타 보도 동향

❑ 과수

○ 현대적인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건설된다(로동신문 3.20)

· 김정일은 "우리나라의 과수업발전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려 후대들에게 보다 살기 좋은 사회를 돌려줘야 한다"고 말함.

· 지난해 6월 고산과수농장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으로 꾸리기 위해 과학적인 전망계획에 따라 기초건설부터 과수원정리, 관수체계 수립 등을 계획함.

· 농장을 현대화된 대규모과일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건설은 수천 정보의 토지정리와 과수원조성, 광일가공공장과 과일저장고, 돼지목장건설 등 여러 단계로 나뉘어 진행됨.

❑ 남새

○ 남새온실을 새로 건설한다(로동신문 3.22)

· 김정일은 "남새는 우리 인민의 식생활에서는 단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부식물이다"라고 말함.

· 사동구역의 농촌에 이번에 건설하는 태양열남새온실은 원가가 적게 들고 겨울철에도 남새가 자라는데 알맞은 온도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음.

· 또한 오이를 비롯하여 열매남새를 사철 보장하며 여러 가지 봄, 가을남새를 키워 최적기에 포전에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음.

·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농장에서 봄철영농작업과제를 수행하면서 남새온실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에 맞게 공사계획을 바로 세우고 노동력조직과 자재보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.

· 현재 사동구역안의 농장에서는 남새모 옮겨심기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집중적으로 온실의 기초파기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원만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❑ 농기계

○ 농기계 수리를 전투적으로(로동신문 3. 10)

· 김정일은 "농기계와 농업생산 설비의 이용률과 가동률을 높이자면 그에 대한 수리정비사업도 잘해야 한다"고 말함.

· 강남군 농기계작업소에서는 트랙터수리는 물론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협동농장에 보내도록 하자는 목표 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
· 가공작업반에서는 여러 가지 농기계부속품과 새로운 농기구를 생산해내고 있으며 농기계수리작업반에서는 두층갈이보습, 씨뿌리는 기계를 생산해내기 위해 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

○ 많은 영농자재를 생산보장(로동신문 3.30)

· 전기기계공업관리국 아래 공장에서 영농자재생산 증대를 위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.

· 공장일꾼들은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실천하고 있으며, 소재부문의 노동자들은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현대화된 설비들의 만부하를 보장함으로써 각종 규격의 소재를 생산해내고 있음.

· 각 공장에서는 각종 전선류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생산하여 농업부문에 보내주고 있음.

❑ 농촌지원

○ 농촌을 계속 힘있게 지원(로동신문 3.4)

· 김정일은 “농업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보장사업을 잘해야 한다”라고 말함.

· 시당위원회의 지도하에 시인민위원회에서는 농촌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시하고 있음.

· 시주변 농촌에 내려간 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 일꾼들은 올해 농사에 필요한 중소농기구와 농기계 부속품을 비롯한 영농물자를 성의껏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와주고 있음.

· 3월 3일 평양시에서는 올해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필요한 20여 종에 16만 2,000여점에 달하는 중소농기구와 25종에 5만 7,000여점에 달하는 농기계부속품을 시주변 농촌에 보냈음.

· 농촌에 더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기 위한 사업은 모란봉구역과 력포구역, 형제산구역, 강동군을 비롯한 시안의 모든 구역, 군과 기관, 기업소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.

❑ 현지지도

○ 붉은기 미곡협동농장 현지지도(로동신문 3.14)

· 김정일은 3중 3대 혁명붉은기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 하였음.

- 현지지도에는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조준학, 사리원시당위원회 책임비서 양명철을 비롯한 도와 시, 농장의 책임일꾼이 함께 하였음.
- 김정일은 우렁이에 의한 논비배관리가 많은 노동력과 농약을 절약하면서도 논벼소출을 높일 수 있는 우월한 방법이란 것이 증명되었음을 언급하며 모든 농장에서 이 방법을 완성시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함.
- 또한 오늘의 농업발전 추세는 화학비료와 화학농약을 쓰지 않는 유기농법이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농법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함.